

힝클리 대관장 남아메리카 순방

새로 개종한 회원, 가족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고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을 비롯해 전세계의 대중 매체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권고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계속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 힝클리 대관장은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에서 신권 지도자, 회원, 선교사 및 신문 기자들과 모임을 가졌다. 대관장의 이 여행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수행했다. 9월에는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열린



△에콰도르에 있는 회원들에게 인사하며 하얀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힝클리 대관장

교회 100주년 기념 축하식에 참석하였으며,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열린 연례 종교 신문 기자 총회에 참석한 종교 기자들에게 연설을 하였고, 애리조나, 윈도우 록에 있는 나바호 내이손의 회원들에게 말씀하였으며, 교회의 가장 오래된 미 아메리칸 인디언 와드의 본거지로서, 애리조나 주 메사 근처의 파파고 집회소를 재헌납하였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남미 남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했던 칠십인의 존 비 딕슨 장로가 수행한 가운데 힝클리 대관장은 초점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한 기자 회견을 함으로써 8월 9일 토요일에 그의 활동을 시작했다.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선량합니다. 대

부분은 선한 일을 하고자 소망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날 늦게 힝클리 대관장은 두 개의 우루과이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약 250명의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졌고, 그날 저녁 우루과이 남부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온 1,200명 이상의 형제들이 참석한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말했다. '개종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든 개종자는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주님은 아흔 아홉을 두고 한 생명을 구하려 떠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의 지도자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다음 날 아침에 열린 지역 대회에서 11,000여명의 회원들에게 말씀하면서, 힝클리 대관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를 이해하고, 복음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십일조를 내고, 성전 의식

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부모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했다. '자녀들이 그들의 고국을 사랑하고 법률을 지키고, 가능한 한 모든 교육을 받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덧붙였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8월 10일 일요일에 힝클리 대관장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로 가서 약 7,000명의 회원에게

말씀했다. 당시 남미 남 지역 회장단의 제1보좌였고 현재는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가 힝클리 대관장과 넬슨 장로를 수행했다. '그들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새로운 개종자에 대하여 말했다.

회원들에게 사랑한다고 인사한 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더욱 훌륭해지고자 노력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아순시온 시내에 있는 교회

집회소에서 열린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새로 개종한 사람들을 주의해서 지켜 보고 돌보라는 간절한 권유를 되풀이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그것이 그 자리에서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에콰도르 과야킬

힝클리 대관장과 넬슨 장로는 8월 11일 월요일에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당시 남미 북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칠십인 정원회의 제이 이 켄슨 장로의 영접을 받았다. 딱딱한 모자를 쓴 이 총관리 직원들은 근처의 암석으로 된 고지 위로 우뚝 솟은 건물인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의 건물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 다음 힝클리 대관장은 스테이크 센터로 서둘러 가서 400 여명의 복음 선교사에게 말했다. 그 다음 그는 여러 텔레비전 및 신문사의 기자들과 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가정이 강화되면, 사회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가정이 약화되면, 사회 또한 약화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힝클리 대관장은 파업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에 모인 약 15,000명의 회원들에게 말했다. 가정에 중심을 두고 말씀하면서, 힝클리 대관장은 부모들에게 그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때려서도 안됩니다. 혹사해서도 안되며,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자녀를 때리거나

어떠한 식으로든 학대하지 않고 기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한다면, 부모는 자녀와 함께 앉아서 분별있고 조리있게 그것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면, 놀랄 만큼 훌륭한 결과가 옵니다.'

에콰도르, 키토

8월 12일 화요일에, 약 250명의 복음 선교사와 모임을 가진 것이 에콰도르 키토에서 힝클리 대관장이 수행한 첫번째 활동이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옆에 있는 꽃꽂이에서 싱싱한 장미 한 송이를 빼어 든 뒤, 그 장미는 아름답고 싱싱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 장미를 새로운 개종자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기존의 회원들이 돕지 않는다면, 많은 새로운 개종자가 떠나 영적으로 죽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귀환한 후에도 편지로 새로운 개종자와 계속 교신하도록 격려했다.

그 다음, 한 텔레비전 기자가 교회의 최근의 개척자 150주년에 대한 특집 기사에 포함된 발자취에 대하여 힝클리 대관장과 회견했다. 그 후에 힝클리 대관장은 약 9,000명의 회원들에게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과 넬슨 장로는 켄슨 장로와 당시 남미 북 지역 회장단의 제1보좌로 봉사했고 현재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의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를 대동했다. 대회 날에는 정

치 향의 집회 때문에 전국의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많은 회원들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에 없는 고생을 해야 했다.

'우리가 이 여행을 마치면, 남아메리카의 큰 나라 모두와 중앙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를 방문한 것이 됩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새로운 개종자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고 그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때, 여러분이 그를 격려하고 그를 향상시킬 때, 여러분은 한 개인뿐 아니라 여러 세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실한 남자가 충실한 자녀를 갖게 되고, 그러한 자녀들이 자라서 충실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발전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8월 13일 수요일 저녁,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 10,000 여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힝클리 대관장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선교사들에게 말씀했으며, 본대회를 갖기에 앞서 발렌시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졌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비냐스 장로가 힝클리 대관장과 넬슨 장로를 수행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자신이 30년 전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전국의 회원수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거라고 회상했다. 그는 또한 15년 전에 발렌시아에 최초



△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와 함께 힝클리 대관장이 스테이크 부장 부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힝클리 대관장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의 건축 부지를 돌아보고 있다.



△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TV 방송 기자가 힝클리 대관장과 심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웹 넬슨 장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의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을 도왔던 때를 회상했다. 그는 '1997년 10월에는 교회의 회원 수가 전 세계 160개 국가에서 일천 만 명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커다란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한 개체의 인간이며, 모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염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치지 않고, 서로를 고양시키지 않고 강화시키지 않는 때는 결코 오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그는 이 남 아메리카의 방문을 마치면서 말했다.

콜로라도 덴버

20,000여 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과 고위 인사들이 9월 13일 토요일에 덴버의 맥니콜스 경기장에서 힝클리 대관장 및 북미 중앙 지역의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와 함께 덴버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현지의 교회 회원들은 음악, 무용, 원본의 특색을 살린 이야기 등으로 교회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묘사했다.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라는 주제로 열린, 그 기념식에서는 개척자들의 솔트레이크 계곡 도착 150주년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일 세기 전 이곳에서의 선교부 개설은 주님의 사업을 펼치고 이 말일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강화하는 일에서 이루어진 한 위대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콜로라도에는 말일성도 회당이 없는 지역 사회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이 말했다.

종교 신문 기자 총회

'여러분은 훌륭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종교는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9월 14일 일요일 아침에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열린 연례 종교신문 기자 협회 총회에 모인 미국 전역에서

온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연설에서 교회 역사, 교리, 회원 통계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많은 사실과 세부 사항과 견해 등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 지역 사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점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해서 쓰기에 어려운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독특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다소 다릅니다. 우리의 사업에서 재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소 특이합니다. 우리의 자선 사업 제도도 독특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라는 성구를 인용하면서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판단받기 바라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우리의 연륜이 이제 충분히 깊어졌고,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의 효능을 시험할 근거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커졌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실업계에서 자도자들이 되어 최고 경영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미국의 의사당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가치있는 노력을 바치는 모든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준비한 연설을 한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애리조나, 윈도우 록

애리조나 북동부, 뉴멕시코 북서부 및 유타 남동부 전역에 퍼져 있는 65,000평방 킬로미터 규모인 나바호 인디언 보호 구역의 수도인 애리조나 윈도우 록으로 온 힝클리 대관장을 환영하기 위하여 5,000여 명의 미 아메리카 인디언 회원들이 9월 14일 일요일에 한 자리에 모였다. 나바호 용단으로 장식된 시민 회관 안에서 말씀하면서, 힝클리 대관장은 가정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추구하는 것에 말씀의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여러분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축복으로 간주하십시오.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일주일

에 한번씩 한 자리에 앉아서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내십시오.'라고 힝클리 대관장이 부모들에게 말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손, 우리의 가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교육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가치있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신호입니다.'

애리조나 메사

같은 날인 9월 14일 일요일 늦게, 힝클리 대관장은 바빠 움직여서 애리조나 메사 근처의 대대적으로 수리한 파파고 와드 집회소를 재헌납했다. 1884년에 지어진 파파고 와드에는 솔트 리버 밸리에 있는 피마와 메리코파 지역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참석한다. 그 와드는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미 원주민 와드로 간주되고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약 1,000명의 회원들과 방문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새 집회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자신의 종조부인 아르자 이 힝클리가 이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파파고 와드의 초대 감독을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대관장단이 테레사 수녀의 사망을 애도함

대관장단은 인도, 캘커타 및 그외 다른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온 카톨릭 교회의 테레사 수녀가 9월에 사망한 것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은 전세계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그녀의 일생에 걸친 헌신적인 봉사에 온 세상이 감동했으며, 그녀의 기독교적인 선행은 앞으로 올 수 많은 세대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헌신을 기울인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마태복음 18:5)라고 하신 구세주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의 친지 및 동료들 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

1998년 세계 청년 축제

교회는 청년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마음을 돌리고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도록 돕기 위하여, ‘마음을 가족에게로 돌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청년 축제에 교회의 청년들을 초대한다.

교회는 각 청년이 1998년 1월부터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읽고 공부하고, 자신의 가족 역사 기록을 준비하고, 성전 의식을 위하여 적어도 한 가정의 이름을 성전에 보낼 준비를 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대리 침례 의식을 수행하고, 가족에 초점을 맞추거나 가족을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1998년 11월에 청년 축제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청년 축제는 와드나 지부 또는 스테이크나 지방부에서 행해질 수 있다.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지시 하에, 청년 지도자들은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 전문가들과 청년 위원회 위원들을 필요한 곳에 지명할 수 있다. □

우크라이나어 물문경 출판

대관장단은 우크라이나어 물문경의 출판을 발표했다. 이 우크라이나어 물문경의 초판에는 참조 자료에 대한 지침과 물문경 내용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는 천연색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대관장단은 이렇게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회원들이 자신의 경전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정기적으로 개인 경전 공부와 가족 경전 공부를 할 때 뿐만

아니라 교회 모임에서나 임무 지명을 수행할 때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회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경전 내용을 가르칠 때 그들의 간증은 더 굳건해지고, 그들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며,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들의 능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와 의를 수호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어 판 물문경은 한국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

지역 보조조직 훈련 모임

—교회 본부의 피네가 자매(본부 초등 협회 회장)와 토마스 자매(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가 방한하여 훈련함—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양일 동안, 한국에서는 본부 초등협회 회장인 패트리샤 피네가 자매와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인 캐롤 비 토마스 자매를 모신 가운데 스테이크/지방부 보조 조직 회장단 훈련 모임이 있었다. 10월 28일에는 대전 선화 와드에서 중부 이남 지역의 보조 조직 회장단을 위한 훈련 모임이 있었으며, 10월 29일에는 서울 신당 와드에서 수도권 지역의 보조 조직 회장단을 위한 훈련 모임이 있었다.

이 훈련 모임에서는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과 지역 보조 조직 회장단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피네가 자매와 토마스 자매 모두 경전을 통해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권유했다. 또한 지도자들이 지침서 및 조직 관련 자료에 대해서 숙지하고 정통하도록 강조했다. 이 보조 조직 훈련 모임에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김중열 장로와 고원용 장로를 비롯해 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 사이의 공고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훈련을 받고, 함께 토론하기도 했다. 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피네가 회장과 브라운 장로도 함께 참석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서울 동 스테이크

1998년 스테이크 주제를 선교 사업으로 정함



△ 각 와드/지부의 선교 책임자의 동반자로 봉사하게 될 스테이크 역원과 동 스테이크 부장단

서울 동 스테이크는 198 주제를 선교 사업(교리와 성약 31편 3절)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스테이크 선교사는 다른 부름을 받지 않고,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은 와드/지부의 선교 책임자의 동반자로 봉사하며, 1/4분기 내에 스테이크 선교사 훈련 모임을 준비하고, 모든 활동 가족은 매월 물문경 및 성도의 벗을 이웃에게 전하기로 하였다. 고등 평의원인 반상호, 송병철 형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교 담당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 받았다.

또한 성도들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의 필독 도서로 ‘그리스도를 믿음’과 ‘기이한 업적’을 선정하였으며, 이웃과 인사함, 개종자 침례 점검표 활용, 청소년 및 초등협회 회원들의 선교사 준비를 위한 통장 마련, 새로운 회원에게 꽃 달아 주기 등의 세부 목표를 세웠다.(박찬식)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의 작품 전시회가 지난 10월 11일 스테이크 센터에서 있었다. 작품으로는 번동와드에서 과자로 만든 집, 미아와드에서 지점토로 만든 손과 발, 장위 지부에서 개량 한복, 아동복, 도봉 와드에서 재활용 비누, 묵화 의정부 지부에서 썩슬 미수가루, 동판, 동두천 지부에서 구리 반지,

프랑스 자수, 상계 와드에서 만력 달력, 쿠키 등을 출품하였으며, 예년 보다 한결 향상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1년 동안 가진 상호부조회 가사 모임의 풍성한 결실을 엿볼 수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는 정원에서 와드/지부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여흥 시간도 가졌으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알뜰한 가계를 위한 의류 교환도 있었다. 이 모임에는 스테이크 회원 약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박찬식)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선 모임

동대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스테이크 센터인 용두 와드에서 불우 이웃 돕기 자선 모임을 가졌다. 각 와드별로 재활용품과 생활 필수품, 음식 등을 준비해서 판매 및 교환을 하였다.

동대문 스테이크에서는 자선 모임의 결과로 생긴 모든 수익금을 매달 방문하는 아동 복지원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판매와 교환이 끝난 재활용 옷가지 등도 양로원과 아동 복지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서울 북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0월 18일 녹번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1년 동안 일모임을

통해서 만든 옷, 흙패션, 그림, 공예품 등의 작품을 출품하여 재능을 과시했다. 또한 전시회와 병행하여 72시간 비축 프로그램 특별 코너도 마련되었는데, 불광 와드의 유봉열 형제는 조리를 하지 않고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은 헌옷과 신발류는 모두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10월 25일 대한 적십자사에 전달했다.(김미경)

안양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9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이영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1997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주제인 “저들이 부하고 강하며 번영 하였음에도 저들의 눈이 헛된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지 아니하였고, 주 하나님을 기억 함에도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주 앞에서 심히 겸허하였더라.” (엘마서 62장 49절)를 인용한 교만과 겸손, 겸손과 순종, 교만과 회개를 통한 자신들의 신앙, 가정에서의 사랑, 회원간의 우정에 대해 말씀을 하였다.

특히, 이영환 스테이크 부장은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는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자신의 정욕, 감정을 이겨내야 하며, 가정에서의 사랑은 매우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서울 성전장인 한인상 장로는 “경전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다는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며, 경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여 신앙의 원리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는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 동안 수고하셨던 군포 와드 조광열 감독이 해임되고 박효순 형제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름 받았으며, 독산 와드 김성록 형제가 대제사에, 군포 와드 길현준 형제와 안산 와드 김홍환 형제, 독산 와드 김용

훈 형제가 장로로 각각 지지 받았다.(박상섭)

스테이크 축구 대회

지난 11월 8일 평촌 중앙 공원에서는 안양 스테이크 축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90여 명의 선수 및 응원단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는 시흥, 독산, 군포 안양 선발팀, 안산 등 네 팀이 참여하여 각축을 벌였는데 독산을 꺾고 결승에 올라온 시흥과 안산을 꺾고 올라온 군포 안양 선발팀은 시종 접전을 벌인 끝에 2대2로 무승부가 되어 공동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축구팀은 우승 트로피와 더불어 대외적인 경기에 있어서 안양 스테이크 대표로 인정 받게 된다.

안양 스테이크에는 현재 시흥 와드의 하나로 축구단, 군포 와드의 암몬 축구단, 안산 와드의 썬더(번개) 축구단, 독산 와드의 모사리(모두 다 사랑하리) 축구단 등이 공식적으로 창단 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양 와드는 아직 축구단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연습 및 경기를 하고 있다.

스테이크 내 6개 와드 중 5개 와드에 축구단이 조직되어,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선교 사업은 물론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재활동시키는 데에도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심상문)

청소년 지도를 위한 특별 세미나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스테이크 센터에서 ‘청소년 지도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모임에서는 3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이영환 스테이크 부장이 경험과 전문적인 이론을 토대로 청소년기의 특징 및 교회 생활과 학력 신장 등의 말씀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과 공부 방법도 소개하였다.

인천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고 함께 한 신권 지도자들

인천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1997년도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엘마서 46장 12절 중 “우리의 하나님과 종교와 자유와 평화와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이 대회의 토요일 모임에서는 이순호, 임윤임 부부를 포함한 5명의 형제 자매들의 가정의 밤과 경전을 상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은 ‘세대차’라는 말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악마의 간교한 용어이며, 부모들이 올바른 가정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일요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배광식 형제는 “자녀는 부모하기 나름이며, 자녀들의 선교 사업을 통해 주님께 진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고 말씀했으며, 스웨인 서울 서 선교부장은 신권 지도자들이 선교 사업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요일 총회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허병석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느낀 가족의 소중함과 건강할 때 주님의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했으며, 이 후 여러명의 연사 중 부평 와드의 남해경 자매는 어린 자녀들이 찢어 놓은 경전을 보이며,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경전을 읽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

며, 새로 구입한 경전으로 더욱 열심히 경전을 읽겠다고 말씀했다. 마지막으로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할 수는 없으며, 비록 좁고 험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정을 훌륭히 지키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부평 와드 합창단의 잘 준비된 합창으로 모임이 더욱 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안 와드의 박재현 형제가 장로로, 연수 지부의 이수균 형제가 대제사로 각각 지지 받았다.(이성열)

대구 스테이크

체육대회



지난 10월 3일 동천 초등학교에서 대구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11개 와드/지부가 참석한 이번 대회는 동군에 수성, 경산, 영천, 포항, 경주로 구성되었고, 서군은 대명, 중리, 구미, 김천, 안동, 상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입장행 열에서부터 시작된 열기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식을 줄 몰랐다. 오전에는 각 조직별로 경기가 치러졌는데, 상주 지부가 장애물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김천 지부는 단체 줄넘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점심 식사는 각 와드/지부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었다.

오후에 계주에서는 역전에 역전을 더해가며 보는 이의 손에 땀이 차게 할만큼 흥미진진하

여는데 결국 수성와드가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줄다리기가 동군과 서군의 대결로 시작되었다. 3판 2승제로 된 경기에서 서군이 연속 2판을 이겨 전체 우승을 차지했다.

3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같이 모여서 체육 활동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성도들의 웃음과 기쁨 속에서 복음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만물은 영적이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하루였다.(김민수)

여성 대회

10월 11일 대구 수성 와드에서는 대구 지역 자매들이 모인 가운데 97 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오후 3시부터 각 가정에서 비축하고 있는 식품, 물품 등을 전시하는 비축 프로그램 전시회가 있어서 비축할 수 있는 방법과 재료들에 대한 지식과 지혜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이어서 오후 5시부터는 전정신 스테이크장의 감리하에 교리와 성약 25편 2절 “너희가 충실하면...”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준비된 자매들의 간증과, 말씀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모임은 영적으로 차고 넘쳤다. 자매들은 오늘날 자매의 역할과 가정 안에서 자매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거함을 보여야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김명미 자매는 방문 교육의 필요성과 진정한 자매의 역할인 성전 사업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이병만 형제는 시들지 않는 사랑을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부터 전할 필요성과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방문 교육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잘 준비된 연사들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 모든 자매들이 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더 많은 자매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충실한 방문 교육을 다짐하며 모임을 끝냈다.(장순자)

부산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10월 11일, 12일 양일간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양기옥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모사 이야기 2장 41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의 일요일 총회에서는 온천 와드의 강은경 자매와 수정 와드의 이정훈 형제가 하와이 호놀룰루 방문자 센터에서의 선교 사업 경험과 선교 사업을 통해 얻게 된 축복에 대해 말씀하였고, 해운대 와드의 신동기 형제는 ‘교회 부름에 대한 봉사’에 관해 말씀하였고,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장인 이무정 자매는 ‘복음이 주는 기쁨’에 관해 말씀했다.

이어서 이병학 축복사는 ‘축복사의 축복’을 주제로 축복문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경전이니 소중히 여기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권고하였고, 리시먼 부산 선교부장은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도, 경전, 성찬식 참석, 부름에 충실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기옥 스테이크 부장은 요즘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유하며 학식과 부를 주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멸망할 것이고, 신앙이란 단순한 믿음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말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테이크 청남 회장에 현양옥, 함현철, 김종필 형제가,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에 배경희, 정혜연, 장미란 자매

가 부름 받았으며, 해운대 와드의 김영구, 손상기 형제, 신정 와드의 김만연 형제가 장로로, 온천 와드의 이계원 형제, 광안 와드의 정수연 형제가 대제사로 각각 지지 받았다.(이희숙)

시나브로 축구단 창단



지난 9월 4일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단위의 축구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회장에 해운대 와드의 김형경 형제, 감독에 해운대 와드 신동기 형제, 코치에 광안 와드 문경호 형제, 기술 자문 위원으로 해운대 와드 김상섭 형제, 경기 섭의 담당에 광안 와드 이상인 형제가 맡고 있으며 매월 2회 토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해운대 중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우정 증진과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이 축구단의 ‘시나브로’라는 명칭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자”라는 의미로 정해졌다.

시나브로 축구단과의 경기를 원하는 팀은 이상인 형제(전화: 051-758-4697, 051-753-6335)에게 연락하면 된다.

광주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11월 1일과 2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니파이일서 17장 3절을 주제로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2

보좌인 김광윤 형제는 찬송가 155장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으며, 풍향 와드 감독에서 해임된 조용현 형제는 ‘이해의 영’이라는 주제로 말씀하면서 더 열심히 지금의 감독을 도와야 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김선아 자매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더 큰 발전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충배 형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했으며,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은 350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351번의 시도로 지금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한 미국의 어느 작가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간구하도록 권고하며, ‘일하는 것이 축복이며 특권이며 세상이든 교회에서는 일을 즐겁게 하라’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총장 와드 황동연, 금성 지부의 장석환, 풍향 와드의 백춘길, 손권식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 스테이크 대회에 앞서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전야제로 10월 30일 퀴즈 대회와 31일 구도자와 선교사가 함께 하는 모임을 가졌다. 30일 모임을 위한 예선은 각 와드에서 필기 시험을 거쳐 선발된 2명이 조를 이루어 본선에 진출했으며, 이날 1등은 금성 지부의 강경남 형제와 문미영 자매가 차지했으며, 2등은 정성채 형제와 민은영 자매가, 3등은 송정 와드의 안민의, 김선아 자매가 차지하였다.(김논산)

광주 신학 연구원

바운티폴 축제

1997년 10월 25일 4시 광주 신학 연구원에서는 광주·전주·순천이 함께 하는 바운

티폴 축제가 열렸다. 이날 축제는 개척자 15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10월 18일에 있었던 개척 30주년 기념 행사를 소개하면서 30년 동안의 전주 스테이크를 이끌어 가셨던 많은 분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그날의 행사를 비디오로 촬영해 보여 줌으로써 더욱 실감나게 했다.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신 충장 와드 감독으로 봉사했던 최송민 형제의 글을 통해서 신앙 생활과 감독님으로 봉사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을 토대로 광주 스테이크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잔잔한 음악과 함께 참석자들의 가슴에 여운을 남겼다.

이어서 계속된 '사랑의 이중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6쌍의 형제와 자매에게 데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외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는 무도회가 진행되었다. 위의 6쌍의 형제·자매 중 신승훈 형제와 송미령 자매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한 팀으로 선정되어 광주 비엔날레 초대권을 선물로 받았다.(김논산)



△ 광주 신학 연구원 바운티폴 축제

미국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새로운 한인 학생 회장단 조직

브리감 영 대학교 프로보 한국 학생회는 올해 5월에 있는 대대적인 한인 모임을 통해



△ 브리감 영 대학교 한국 학생회 임원들

새로운 학생회 출범을 알렸다. 새로운 학생회는 고문에 이호남 교수, 학생 회장에 최용훈 형제, 부회장에 김세운 형제 그리고 신종호 형제, 권순형 형제, 한선희 자매를 비롯한 20여 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에 새로운 신입생들이 많이 가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은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테니스 대회를 필두로 9월 27일의 신입생 환영회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학생회는 바쁜 유학 생활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영성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중심을 두는 개인 생활과 학칙 준수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생회 정기 회보인 '참깨 소식' 창간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증대 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브리감 영 대학교 프로보 학생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프로보 지역으로 유학 또는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회원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소: 665N, 600W #11 Provo UT 84601

E-Mail: choiy@itsnet.com

Homepage:

<http://www.itsnet.com/~choiy/ksa.html>

프로보 지역 한인 노변의 밤

프로보 지역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인 커뮤니티는 매달 셋째주 일요일 오후에 초기 신앙인들의 모임을 기념하는 "노변의 밤"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 모임에서



△ 노변의 밤을 마치고 함께 한 프로보 한인 지부 회원들

는 유명한 교수들과 한인 커뮤니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학생 및 가족 여러분의 소담스러운 신앙 간증과 가슴 뭉클한 삶의 이야기를 꾸며 나가고 있다. 신앙이든 아니든 조국을 떠나서 이국인 프로보에 사는 350여 명의 한인 성도들에게 이 노변의 밤은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이 모임을 위한 회장으로 이견철 형제가 수고하고 있다.

프로보 어린이 한국 학교 개강

브리감 영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차봉 형제는 그 동안 이 곳 커뮤니티에 사는 한국인 2세들을 위한 이렇다 할 만한 교육 시설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는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한국어 학교(한인 학교)를 "프로보 어린이 한국 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보다 나은 교재와 시청각 자료를 통해 모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못지 않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에게 모국의 소중함과 언어를 가르쳐 주는 이 학교는 김차봉 형제를 교장으로 교무 주임인 이미선 자매와 10여 명의 교사와 보조 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한편 프로보 어린이 한국 학교에서는 한국의 회원들의 가정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동화책, 국어 교과서 등의 교육 자료가 있으면 기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소로 기증하면 된다.

이미선

1773N, 340E, Pleasant Grove UT 84602

전화: 801-785-7304 □

전주 스테이크 선교 30주년 기념 행사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예언자 브리감 영이 개척자들과 함께 갖은 고초를 겪으며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1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전주 지역에 회복된 복음이 들어온 지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다. 1967년 10월 17일 네 명의 선교사가 전주 지역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 지역 호남인들에게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게 되었다.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이를 기념하고자 김종갑 전 스테이크 부장의 지시로 30주년 기념 행사 추진 위원회를 지난 4월 조직하였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협조하여 지난 30년 역사의 정리와 기념 행사를 준비해서 정확히 30주년이 되는 10월 17일을 포함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에 걸쳐서 합창 발표, 무용 발표 선교 전시회 및 노변의 밤 등을 성황리에 마쳤다.



30주년 기념 행사 중에서 성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어 모은 것은 역사 편찬이었다. 30년이 된 전주 지역의 복음 전파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주 스테이크 선교 30년사 - 발자취에서 미래로”의 집필이 시작되었다. 책을 출간하지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나왔으나 그 작업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섣뜻 추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초기 회원들 중에서 작고하신 분도 있어



옛날의 역사가 점차 희미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성도들의 전주 스테이크 30년사에 대한 자부심과 초기 역사 정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역사의 정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책은 선교 30년사를 정리하는 역사에 초점을 둔 “발자취에서 미래로”와 오래 인내했던 성도들의 개인 역사와 회원들의 간증을 정리한 “거자씨”가 출간되었다. 이것은 역대 선교부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들의 도움과 스테이크 잡지인 “시온샘”을 지난 4년간 꾸준히 발행해 온 시온샘 편집 위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발자취에서 미래로”에는 1967년 10월 17일 선교사 4명이 팔미 한국 선교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전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하여 전주 지부, 전주 지방부, 그리고 전주 스테이크가 되는 역사가 각 장으로 구분되어 총평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비단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4장 ‘미래의 시온’에서는 지난 3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라북도 전 지역에 시온의 깃발을 휘날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스테이크의 역사를 최초로 정리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주 스테이크의 모든 성도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열심히 주님의 사업에 봉사하여

50주년 때에는 더욱 발전된 스테이크로 성장시키자는 다짐을 하였다.

“거자씨”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책으로, 침례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된 회원들은 자신들의 출생, 성장 과정, 침례 동기, 교회 활동 및 간증을 기록하였다. 37가족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이는 60명 이상의 회원들이 침례를 받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그들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된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쳐 있었고, 이를 통해 전주 스테이크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특별한 선교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개척자 150주년과 전주 지역 선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전주 지역의 역사와 초기 신앙의 개척자들이 겪은 고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에 관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관한 대형 전시물 18점이 직접 제작되었다. 종래의 선교 전시회와는 달리 50여 명의 구도자들이 찾아와서 상황을 이루었고 즉석에서 토론 약속도 이루어졌다. 전시회를 준비한 선교사들과 몇몇 성도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주님의 영을 느꼈고, 전주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으로써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새

롭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다. 전라북도 지역을 입체적으로 축소화한 하얀 바탕의 모형도였다. 이 모형도는 현재의 와드, 지부 및 미래의 와드, 지부가 표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18일, 기념 행사 모임은 이효종 스테이크 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병규 한국 교회 교육 기구 대표와 한인상 서울 성전장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독신 형제, 자매에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고른 연령층에서 준비했던 현대 무용(제즈 발레)발표가 있었다. 양진영 자매의 연출로 7월부터 순수한 아마추어인 9명의 회원들이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주제로 연습한 이 무용은 여러 가지 방향과 시련 끝에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을 표현해 전주 스테이크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 주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어진 리아 호나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는 조영곤 형제의 지휘, 홍주원 자매의 피아노 반주로 총 16곡을 연주하였다.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는 말일의 복음 회복에서부터 현재 전주 스테이크 선교 30주년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사를 표현하는 곡으로 구성하였고, 2부는 이를 축하하는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19일 저녁에는 이번 행사를 한층 영적으로 고취시켜 주었던 노변의 밤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초대 전주 지부장 과 초대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한 박주인 형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한다고 말씀했고, 광주 신학 연구원 조용현형제는 꾸준히 참고 견디는 일관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30주년 기념 책자를 통해 느꼈음을 말씀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브라운 장로는 "주님께서 곧 오시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해서 행사는 막을 내렸다. 전주 스테이크 선교 30주년 기념 행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초기 개척자들의 희생과 전주 스테이크의 놀라운 발전을 일깨워 주고 역사의 한 장으로 남았다.(강영욱)□

서울 영동 스테이크 개척자 150주년 기념 전시회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로 오룬 와드에서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개척 기념 행사는 영동 스테이크가 탄생된 이래 가장 큰 행사였다. 초기 선조들이 겪은 시련과 고통을 되새기고 그들이 남긴 값진 유산을 계승,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9월 7일 계획안이 발표된 이래 자료 수집과 판넬 제작 등 실질적인 준비는 4주 안에 마무리 되어져야 했다. 영동 스테이크 대회 일주일 전에 전시회가 차질없이 치러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촉박한 시간에 쫓기면서도 열심히 준비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은 매일 저녁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1

준비

8월 17일 첫 준비 모임에 스테이크 부장단, 스테이크 선교부장단 그리고 감독 지부장, 선교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1주일 간 기초 자료를 수집하면서 전시회 준비는 시작되었다. 8월 24일 2차 준비 모임을 통해 기획(정옥 감독), 홍보(조양호 고등 평의원), 제작(김동우 지부장), 지원(최귀염 고등 평의원) 등 각 팀을 편성하고 서회철 스테이크 부장의 총책임 아래 박성진 스테이크 선교부장이 실무 책임을 맡아 모든 과정을 이끌었다. 20여 명의 준비 위원이 지명되고, 제작팀은 전시장 레이아웃과 전시 판넬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팀은 매주 2회 이상 모여 자정이 넘도록 협의하는 가운데 준비된 세부 계획서(A4용지 18쪽 분량)를 만들어냈다.

9월 7일 스테이크 신권 역원회에서 계획안이 발표되고 각 와드 지부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판넬에 부착하기 시작했다. 급하게 진행된 준비라서 그런지 자료 부족, 사람 부족, 시간 부족 등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편집하는데 온 열정과 혼신을 쏟았다.

9월 21일부터 스테이크 부장단, 선교부장단은 별도의 팀을 구성, 매주 와드/지부 제작현장을 돌며 전시물의 통일감과 예술적 감각을 살리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0월 3일 준비된 전시판은 스테이크 전시장으로 옮겨져 수정 작업과 최종 점검을 거쳐야 했다.

홍보팀은 품위 있게 디자인된 포스터 2000부와 초대장 5000부를 인쇄하여 지역 곳곳에 게시하도록 와드 지부로 배포하였다. 또한 간증이 담긴 물문경 1000권을 회원들로부터 기증받았고 1997년 8월 4일자 미국 타임지에 게재된 기사를 번역해서 편집한 팸플릿도 1000부 준비했다. 지원팀에서는 회원들이 기부한 금액과 각 와드 지부 분담금을 합하여 천여만 원이 지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방문객 모두에게 제공될 음식 재료도 준비되었다. 성남 중앙 지부 이정희 자매는 프로보에 거주하는 친구와 솔트레이크에 계신 할아버지를 통해 일부 자료들을 어렵게 구하기도 했다.

영동 와드 박병원 형제는 컴퓨터를 활용, 작품의 전체 윤곽을 세우고 스캐너 작업을 통한 사진을 하나 하나 전시판에 디자인하는 열정을 쏟았다. 서부 개척사 분야를 맡았던 나유순 자매는 개척 시대의 고난과 역경을 그림으로 묘사하기도 했으나 계획안이 자주 변경되어 어려움을 겪고 실의에 잠길 때도 있었다.

그밖에도 여러 와드 지부의 재능있는 형제 자매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신앙의 열정에

의해 마침내 전시물들이 완성되었고, 영동 스테이크에서 봉사 중인 40여 명의 복음 선교사들도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2

주제와 전시장

1층 예배실 앞 뒤 넓은 공간은 제1전시장에서 제5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주제 별로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2층 각 교실에는 영화 상영관과 보조 전시실을 마련하였다. 제1전시장에는 “우리의 신앙”을 주제로 구원의 계획과 신앙개조, 세계 언론에 비추어진 교회의 모습, 가족 역사 사업, 가족 신문, 가족 역사, 지혜의 말씀을 통한 건강 관리, 가정의 밤, 미국 상원의 건강 보고서와 물론의 식생활 등으로 구성되었고, 제2전시장은 “우리의 신앙II”를 주제로 가정 비축 프로그램, 교회 복지 프로그램, 예언자들의 역할, 성도들의 성공적인 사회 생활, 태버나클 합창단, 로키산맥 화강암 동굴의 가족 역사 기록 보관소, 브리감 영 대학교,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온누리 합창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3전시장은 “구원의 계획”을 주제로 회복된 교회, 신권 조직, 상호보조회, 청남·청녀, 초등협회, 신학 연구원, 성전에 관한 것들이 구성되었으며, 제4전시장에서는 “교회 역사”를 주제로 교회 회복의 동기, 서부 개척사, 한국 초기 성도들의 이야기, 영동 스테이크의 교회 조직 도표와 역원들의 사진,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는 연대, 물론경 시대가 차지한 비중과 주요 사건들을 연대별로 비교 분석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제5전시장은 중앙 탁자 위에 물론경, 교회 출판물과 각종 자료 등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했으며, 예배당 뒷 무대에는 회원들이 출품한 유화, 판화, 서화 등 작품들이 예쁘게 장식된 표구로 꾸며져 전시되었다.

2층 전시장은 1호실, “영어를 잘 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2호실엔 영화 ‘유산’ 상영, 3호실, “조상 찾기를 도와 드립니다”, 4호실,

“건강을 위해 도와 드립니다”, 5호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드립니다”를 주제로 조양호, 조신환, 민신흥, 최상업 형제가 자문을 맡아 구도자를 위한 특별 홍보관이 설치되었다. 각 전시장은 관람자가 생생한 느낌을 갖도록 대형 사진, 실물 모형의 물품, 대형 스크린을 사용한 영상물들을 비치했다.

이러한 준비에 맞추어 요른 와드 지역의 송과구 각 기관장과 지역 유지들에게도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3

전시회날

10월 10일 첫날에는 1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교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을 전시장으로 안내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된 자료들을 관심있게 보았고, 2층 영화관으로 안내된 구도자들은 한 시간여 상영된 영화 “유산”을 관람한 후 “당시 지역 주민들의 몰이해로 핍박 받았던 교인들의 고통은 퀴바디스 영화의 한 장면에서 기독교인들이 폭악한 치자들에게 의해 사자굴 속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 눈물겨웠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특히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자료와 조상을 구원한다는 가족 역사 사업 부분은 많은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200



여 명이 넘게 관람했다.

토요일인 둘째 날에는 20여 명의 복음 선교사들이 전시장 주위에서 안내를 맡은 가운데 성남 와드, 성남 중앙 지부, 분당 지부 회원들이 구도자들을 초대하여 안내했다. 이날은 준비 작업에 열의를 쏟았던 독신 성인들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필요한 봉사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였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회원들은 전시장에 설치된 컴퓨터 앞에 앉아 교회 여러 프로그램을 검색해 주며 방문객들을 맞았다. 최남용(스테이크 부장단 1보좌) 형제는 개척하는 학교 동료 교수를 초청, 관람하게 하는 열의를 보였다.

일요일인 셋째 날에는, 영동, 서초, 잠실 와드와 이천 지부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시회를 진행했다. 그 외 다른 와드 지부에서도 정규 집회를 마치고 관람하기 위해 모여 든 회원과 초청된 구도자들로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서초 와드 정근자 자매는 친구를 전시장으로 안내하였는데 의외로 친구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잠실 와드 조양호 형제는 그가 운영하는 언어 치료 연구소 지도 교사들과 학부형 일부를 초청하여 그들에게도 교회에 대해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은 것들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김종열 장로, 한국 지역 공보 위원장인 이도환 형제 등 지도자들도 관람한 후 놀라운 표정을 짓고 성도들의 정교한 손길이 담긴 훌륭한 작품 전시회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4

결과와 다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시간을 두고 회원들은 훌륭한 경험을 했다. 준비하느라 쏟은 그들의 열정에 비하면 3일은 너무나도 짧게만 느껴졌다.

앞으로도 와드 지부에서 순차적으로 갖게 되는 전시회에서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

다는데 다소 위안은 되었다. 이번 대전시회를 통해 교회 성인 회원들은 초기 성도들의 개척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된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동감 있게 교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마음 뿌듯함을 전했다. 초청된 구도자들도 교회의 독특한 신앙관, 효율적인 교육 정책, 아름다운 성전, 훌륭한 사회 인사들이 속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는 놀라워하며, 사이비 종교나 군소 종교 단체 정도로 생각했던 편견을 바꿀 수 있었다고 했다.

당장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은 지역 주민들만큼은 십자가 없는 붉은 벽돌 건축물인 교회를 지나면서 교회를 이전보다는 한층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는 관람 소감으로 전시회의 방대한 자료로 보아 회원들의 신앙의 열정이 담긴 작품들은 가히 처치 뉴스감이 되고도 남는다고 했다. 서울 서 선교부장의 부인인 스웨인 자매는 미국에서 여러 전시회를 돌아보았으나 영동 스테이크의 대전시회 정도의 큰 규모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전시회 다음 주에 있었던 스테이크 대회에서도 스웨인 자매는 눈시울을 적시며 밤 늦도록 망치 소리를 냈던 현장을 둘러본 소감을 말했다. 영동 스테이크 대회 일요일 총회에서 서희철 스테이크 부장은 전시회를 준비한 젊은이들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딸에게 적어 보냄으로써 딸이 흐뭇해 하는 답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동 스테이크의 개척자 150주년 기념 대전시회는 교회의 방대한 조직과 역사, 성스러운 유산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회원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했다. 시간에 쫓겨 많은 회원들이 좀더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긴 했으나 이번 준비된 작품들은 처음부터 와드 지역 별로 전시회 때 사용된다는 목표가 정해진 터였다. 일차적으로 12월 중 신장 지부가 자료를 보완하고 전회원들이 참여해서 선교 전시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김동우 지부장의 전언에도 기대를 걸어본다. □



고원용 장로

(한국 지역 개척자 150주년 기념
활동 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부심을 되살려 준 뜻깊은 한 해

오래 전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 서울에 있는 지부들끼리 운동 시합을 곧잘 하곤 하였습니다. 농구, 배구, 소프트볼 등 여러 경기들을 할 때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시합을 하고, 열띤 응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합이기 때문에 지는 팀이 생기기 마련이고, 시합이 있는 다음 주일에는, 특히 금식 주일이 되는 날에는 시합에 관련된 간증이 줄을 잇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속한 삼청 지부가 시합에 지고 난 다음 주일에 간증을 하며, “대 삼청 지부가 이번 시합에 져서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모두가 분발을 하여야 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 삼청 지부”. 당시의 삼청 지부가 과연 “대 삼청 지부”라고 불리울 만큼 규모가 컸고, 사람이 많았는가 하면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시에 저에게 “우리 삼청지부는 대삼청 지부”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삼청 지부 회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30여 년전 교회는 아직도 지부의 상태이고, 바깥에서는 “이단 교회”, “미국 사람 교회” 등으로 알려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교회 회원들은 우리 교회가 말로 참된 교회이고, 비단 교리뿐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또한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997년 개척자 150주년 기념의 해를 돌아보며 30여 년 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기념의 해를 돌아보며

오랜만에 옛날의 자부심을 새삼 느껴본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기념 활동

지난 해 말 한국 지역 개척자 150주년 기념 자문위원회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고 스테이크/지방부장, 선교부장 및 여러 역원들과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이 기념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 이 활동이 회원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교회가 발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행사를 치름으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준 지침에 따라, 모든 성도 개인 및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 그리고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행사 계획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개척자의 희생과 헌신을 분명히 느끼고, 개인의 신앙 및 교회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회원 가정에서는 “우리의 유산”이라는 책자를 가정의 밤 시간에 함께 보며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돌아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개척자 150주년을 기념하는 노변의 밤, 음악회와 연극 등 다채로운 활동이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 단위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년 벽두에 가진 역원 신년 하례 모임에서 개척자 기념 활동의 개요가 소개된 이후 전국에서 실로 다양한 활동이 1년 내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성도들의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활동의 면면을 잠시 훑어보면, 거의 모든 스테이크/지방부에서는 신권 회복 및 보조 조직 창립 기념행사를 개척자 150주년을 기념하는데 초점을 모았을 뿐 아니라, 개척자들을 기리는 특별 노변의 밤을 가져 교회 초기 개척자들의 회생을 다시 한 번 되새기었으며, 교회 본부에서 제작한 “유산”이라는 영화도 소개가 되어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동대문 스테이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연극을

공연하여 큰 호응을 받아 4월 19일에 이어 5월 31일 재공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누리 합창단은 개척자 150주년 기념 연주회를 전주, 광주 및 서울에서 가져 개척자들을 기리는 해설과 음악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주와 수원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이 합동으로 개척자 150주년 기념 등반 모임을 내장산에서 갖는 등 개척자들의 회생과 헌신을 기념하는 활동과 이를 통한 회원들의 열기는 일년 내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또한 8월 초에는 한국 청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독신 성인 젊은이들이 충북 영동 마니산 수련원에 모여 개척자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개척자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교회와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4년만에 모인 형제 자매들간의 우정과 사랑을 돈독히 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어느 대회보다도 영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진행되었고 참여 의식이 돋보인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천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역대 대관장님의 모습이 담긴 깃발을 들고 행진하여 들어오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한국 교회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역군들이라는 화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개척자의 헌신에 감사를 표시

이러한 단순한 기념 활동뿐 아니라, 개척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덕분에 오늘날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헌신과 회생을 나누어 주는 것도 개척자 150주년 기념의 해의 취지에 맞는 일이라 생각하여 많은 봉사 활동이 스테이크/지방부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가진 헌혈의 날 행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가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로서 2,000여명에 가까운 회원과 선교사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사랑의 피를 이웃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개중에는 헌혈을 하고자 원하였으나 사전 혈액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애석해 하며 제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조르는 모습은 이날 행사를 돕기 위하여 나온 한국 적십자 혈액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하여 헌혈 장소를 찾아온 성도들은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운 마음에 멈칫거리기도 하였으나, 헌혈을 한 후에는 오히려 더욱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도 이 개척자 150주년 기념의 해의 취지에 맞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하여 그동안 교회 본부는 국제 구호 단체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남들이 모르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지원 활동에 감명을 받은 북한 당국은 교회가 가능한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데이비드 소렌슨 장로님, 렉스 디 피네가 장로님,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님 등이 함께 또는 번갈아 가며 교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여러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문하신 회장단 여러분들이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고, 대관장단의 허락을 얻어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7월 첫째 주 금식일에 북한 동포를 위한 특별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7월 첫째 주 안식일에 전국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경건하게 간증 모임에 참석하여 사랑의 간증을 나누었고 자신들이 준비한 금식 헌금을 바쳤습니다. 이날 모아진 금식 기금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고, 이 기금은 대한 적십자사에 기탁되어 북한 동포들을 돕는데 쓰여졌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회장단께서 북한 당국자에게 남쪽에 있는 한국 성도들이 금식을 하고 모은 기금을 북한 동포들을 돕는데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들은 처음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남한 동포들이 끼니를 들지 않고 자신들을 돕는데 바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당시에 서로 진행되던 사항들이 그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을 더욱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바친 도움이 남을 더욱 감격시켜 주게 됨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활동으로 개척자 정신을 되살려

개척자의 헌신과 희생의 뜻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조상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는 취지로 교회 본부에서 정한 7월 19일 세계 봉사의 날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 유산의 해”이어서 이러한 취지와 개척자 기념 활동을 접목시켜, 우리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국적으로 문화재 및 역사 유적지에 대한 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의 경복궁을 비롯하여, 남한산성, 수원성, 동래성, 충무공 유적지, 남원 광한루 등 각 지역 별로 민족의 얼이 담긴 유적지에 손에 집게와 붓을 든 말일성도들이 한여름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청소에 열중하는 모습은 좋은 이웃, 성실한 시민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는 나름대로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위한 봉사 활동으로 올해를 기념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활동을 올 한해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상호부조회의 모토처럼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느 때보다 잘 준비된 교회를 알리는 선교 전시회

그 동안 선교 전시회가 많이 열렸으나 올해는 개척자 150주년을 기념하며 선교 전시회의 준비 및 규모에 있어서도 그 차원을 높인 뜻 깊은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선교 전시회는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을 중심으로 모든 스테이크 및 와드/지부役員 및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의 기

본 원리와 프로그램 및 개척자 기념의 해에 맞게 교회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물들을 정성들여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교회를 알리는 훌륭한 세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게 용기를 주어 여러 곳에서 적극적인 선교 전시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0월 영동 스테이크에서 가진 선교 전시회는 게시물의 제작 수준 및 다양성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훌륭한 전시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시물은 스테이크의 준비위원회의 지도하에 각 와드/지부에서 한 부분씩 맡아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많은 곳에서는 제작 마감 시한이 다가왔을 때는 밤을 새며 준비하는 등 참으로 열성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선교 전시회는 비단 관람한 구도자나 회원들에게만 감명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작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더 큰 간증과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준비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며, 희생과 헌신이 주는 기쁨과 영적인 감동이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여 준 방송 언론 매체들

올 개척자 150주년 기념의 해의 또 하나 커다란 성과는 여러 기념 활동의 모습들이 신문과 방송에서 널리 소개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교회에 대하여 매스컴에서 소개한 분량이 지난 150년 동안 소개된 분량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신문 잡지 및 방송에서 교회를 소개하고, 개척자 150주년 기념 활동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보도된 모든 내용들이 교회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의 뱃에서도 소개된 바와 같이 뉴욕 타임스나 타임지 같은 권위지에서 상당한 양의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 교회를 자세히 소개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우리 나라

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올해는 교회 공보 활동 측면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활동들이 진행됨에 따라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의 활동을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혈의 날 행사라든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금식기금 모금 활동이 전국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고, 현혈하는 모습이 KBS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관계 기자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개척자 150주년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이러한 행사들을 하는지에 대하여 기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왕이면 개척자 150주년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본부를 방문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는 데 의견이 일치가 되어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 일간지 기자 8명이 교회 본부를 방문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기자 방미 계획을 보고 받은 지역 회장단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지지하여 주었고, 교회 본부, 특히 공보과에서는 여러 일정 및 방문에 따른 편의 제공에 헌신적으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유타 주 관광청에서도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출발할 수 있었고, 5박 6일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문한 기자들은 종교 담당 전문 기자들로서 여러 종교 단체를 취재하고 많은 종교인들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그들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소위 “물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고,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밝은 표정으로 활기차게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말일성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손수레 및 포장마차 대열을 방문하였을 때, 석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걷는 강행군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보통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그들이 가진 신념과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한 기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위슬린 장로님이 초청한 만찬 모임에서 “이러한 말일성도들이 있는 한 이 교회는 지금은 천만의 회원이 있지만 21세기가 되면 일억의 회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일부러 듣기 좋은 인사말로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어 이야기했노라고 하면서 모든 기자들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감명을 받은 것은 가는 곳마다 만나본 말일성도, 바로 사람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보도한 기사들이 이미 성도의 벗에도 자세히 소개가 되었지만 한결같이 긍정적인 기사들로 우리 교회와 이번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를 훌륭히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참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남이 평가해 주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척자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들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여 가족과 사회, 심지어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채 그 험한 서부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의 표준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기자들 뒷바라지에 많은 애를 쓰신 이도환 공보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시고, 좋은 기사를 게재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개척자의 행진은 아직도 이어지고

이 기사를 쓰면서 엘마서에 나오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레이 맨인들에게 성공적으로 선교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암몬이 자신들이 행했던 여러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혹시 교만에 찬 자랑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

다. 그러자 암몬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론 일들이 얼마나 기쁜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노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암몬과 같은 심정으로 이 간증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짧은 지면을 통하여 간략하게 그 동안의 이루어진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이 일에 관여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모든 일들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는가를 생각할 때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이들이야말로 이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척자 150주년의 해는 불과 한 달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지나간다고 해서 개척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척자의 정신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우리 나라는 개척자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성도의 벗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초기 개척자들인 여러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01년은 최초의 한국인 말일성도 회원이 태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호직 박사님이 침례를 받은 날짜가 바로 1951년 7월 29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0주년이 되었을 때 올해 우리가 느꼈던 자부심을 그때는 더욱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에 그러했듯이 50주년을 맞는 한국의 말일성도들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백성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올해의 개척자 150주년 기념의 해를

마무리하는 값진 생각이며, 아니 이제부터 한국의 개척자들의 행진을 시작하여 자랑스러운 “시온”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행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이 행진에 참여하였으나 잠시 길을 벗어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 다시 대열에 참여하도록 인도합시다. 이 대열을 구경하며, 아니 이러한 대열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 대열에 인도하여 그들이 이 행진이 끝날 때 맞붙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해 줍시다. 2001년을 향한 우리 모두는 150년 전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개척자들이 이루어 놓은 값진 유산을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개척자의 행진을 힘차게 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역원 변경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지부장: 정승영
(전임자: 김남수)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감독: 하태완
(전임자: 김웅진)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감독: 강광진
(전임자: 김웅진)

원주 지방부
태백 지부 지부장: 고현직
(전임자: 장영석)

강릉 지방부
주문진 지부 지부장: 이윤석
(전임자: 천익주)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04기
(1997년 9월 22일 - 10월 10일)



<성 명>	<출 신 지>	<선 교 부>
김남중 장로	청주 스테이크 복대 와드	서울 선교부
김분선 자매	부산 서 지방부 김해 지부	서울 서 선교부
박진희 자매	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서울 선교부
박현정 자매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부산 선교부
이문남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부산 선교부
장영란 자매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대전 선교부
조준조 장로	영동 스테이크 서초 와드	부산 선교부
천원호 장로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대전 선교부
황인양 장로	전주 스테이크 정주 지부	서울 선교부

사진 설명) 앞줄 왼쪽부터: 김분선, 박진희, 장영란, 박현정
뒷줄 왼쪽부터: 황인양, 조준조, 이문남, 천원호, 김남중

감 사 의 말 씀

한해 동안 저희 성도의 빛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과
각 지역에서 '교회 소식'의 기사 제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담당자들 및
간증을 투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분들께 사랑받는 성도의 빛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편 집 자-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05기
(1997년 10월 20일 - 11월 7일)



<성 명>	<출 신 지>	<선 교 부>
문수진 자매	대구 스테이크 구미 지부	서울 서 선교부
이우철 장로	청주 스테이크 공주 지부	서울 선교부
최은영 자매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서울 선교부

사진 설명) 왼쪽부터: 문수진, 최은영, 이우철

해외로 부름 받은 선교사



이인숙 자매
광주 스테이크
1997년 12월 31일
미국 유타 주
템플 스쿼어 선교부

새로운 성전 선교사

톰슨 부부

(Neville K. Thompson/ Gael A. Thompson)
봉사 기간: 1997년 11월 2일부터 2년간